

김한길 “계파정치 청산·혁신정당 만들겠다”

민주 당대표 출마 선언...후보 3명으로 늘어

친노·주류측, ‘反김한길’ 연대 구축 움직임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24일 계파 패권주의 청산을 내걸고 당권 도전 선언했다. 이로써 5·4 전당대회 대표 후보군은 이용섭, 강기정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비주류 좌장적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제 반성과 성찰의 결과를 실천할 때로, 계파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며 밝혔다. 그는 “계파의 이익, 이해를 당과 국민의 이익, 이해보다 앞세우는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당권을 패권화했던 지도부 기득권을 당원에게 내려놔야 한다”며 당내 친노(친노무현)·주류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계파, 지역, 세대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힘을 모아 독한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당권을 패권화했던 지도부 기득권을 당원에게 내려놔야 한다”며 당내 친노(친노무현)·주류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계파, 지역, 세대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힘을 모아 독한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당권을 패권화했던 지도부 기득권을 당원에게 내려놔야 한다”며 당내 친노(친노무현)·주류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야권의 재구성 주도하겠다. 민주당만으로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중심에

있는 야권의 재구성은 무의미하다”며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개혁세력, 부동층과 중간세력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팀으로 꼽혀온 김 의원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 15~17대 국회의원을 거쳐 18대에는 대선 패배 후 불출마를 선언, 19대 때 재입성했다.

지난해 6·9 전대에서 ‘이·박’(이해찬-박지원) 연합분당론을 담합이라고 비판하며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지도부에 입성했으나 대선 국면인 지난해 11월 “기득권을 버려야”고 지도부 동반퇴진을 촉구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김한길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통합당의 대표 선출 구도는 친노(친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 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친노·주류 측 성향의 후보군이 반(反) 김한길 연대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미 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이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계파 패권주의 청산과 ‘독한 혁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지지세력까지 끌어안은 ‘더 큰 민주당’을 내걸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섭 의원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신계륜 이복희 의원이 지난 20일 전격 회동한 바 있다.

법주류로 분류되는 이들의 첫 만남은 ‘반(反) 김한길 연대’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전대가 당의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는 혁신 전대론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예비경선(컷-오프)까지는 각자 경쟁하다가 컷-오프 이후 후보군이 범주류 후보 2명이 단일화를 모색, 김한길 의원과 승부를 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범주류 후보의 연대 움직임을 ‘신(新) 계파 패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대를 ‘김한길 대 반 김한길’ 구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 자체가 당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이며 주류 세력의 담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측은 범주류가 혁신 전대를 강조하는 것도 주류의 대선 패배 책임을 회색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방장관 김관진·안보실장 김장수·국정원장 남재준

朴정부 ‘안보라인’ 완성 장관급 3명 ‘육사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방부장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키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이날 오후 임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비공식’ 꼬리표를 떼게 되면서 ‘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안보라인’의 구성도 완료됐다. 새 정부 출범 25일 만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남 국정원장이 육사 25기로 가장 선배이고, 김 실장이 27기, 김 장관이 28기다. 박 대통령이 안보라인에 육사 출신, 즉 군(軍) 출신을 중용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들 3명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군 시절 ‘작전통’으로 불렸다는 점이다. 모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은 육군 최고 영예인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김 장관은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을 거쳤다.

특히 남 원장과 김 실장은 인연이 깊다. 남 원장이 6사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을 마쳤을 때 김 실장이 모두 후임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도 각각 국방안보특별,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활약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출생지는 각각 광주와 전북 전주로 안보라인 장관급 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2명이나 됐다. 남 원장은 서울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역위원장 광주 서을 임우진, 순천·곡성 노관규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임우진(사진 왼쪽)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순천·곡성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임 전 부시장은 지난 23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서구 을 지역위원장 선출대회 관리당원 투표에서 164표를 얻어 85표를 획득한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을 눌렀다.

노 전 시장은 24일 순천시 선관위와 곡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376표를 얻어 242표를 얻은 고재경 후보(전 강기정 의원 보

좌관)를 누리고 지역위원회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25일 중앙당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 전 부시장과 노 전 시장을 최종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5·4전대 대의원 표심 최대 변수

지도부 경선 반영 비율 50%로 높아져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도부 경선에서의 대의원 반영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당락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15, 6·9 전대 때는 대의원과 당원 및 일반 국민 반영비율이 각각 30%, 70%였지만 이번에는 대의원 비중이 50%로 높아지고 권리당원 30%, 일반당원·시민 20%로 변경됐다.

6·9 전대 당시, 김한길 후보가 대의원 투표에서 이혜찬 후보를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대거 참여하는 모바일투표에서 뒤지는 바람에 석패한 바 있다.

특히,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이 선임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성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당대표 후보군을 주류·비주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강기정, 이용섭 후보를 포괄하는 친노·주류 측의 지역위원장 후보가 김한길 후보로 대표되는 비주류보다 앞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대의원 표심이 지역위원장의 ‘오더’대roman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다. 지난 6·9 전대에서 열세로 분류되던 김한길 후보가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모바일 투표를 제외한 대의원, 정책대의원, 현장투표에서 모두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주류 측에서는 전대 막판 후보단일화를 통해 주

류 결집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이에 맞서, 김한길 후보 측은 ‘김한길 대 반 김한길’ 구도 자체를 주류 후보들의 분열 전락이라고 하고 대선 책임론, 혁신론과 함께 당 화합과 탕평 등 통합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세였던 작년 6·9 전대 때 대의원 투표에서 이긴 전례가 있는 데다 대·대선 패배 이후 친노·주류에 대한 대의원의 반감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의원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인2표제인 작년 전대와 달리 이번에는 1인1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세력의 우위에 있는 주류 측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경선 윤곽

황주홍·유성엽 등 이번주 출사표 던질 듯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경선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단, 서울에서는 재선의 우원식(노원동) 의원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우 의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권에서 3선의 안민석(오산) 의원과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의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재선의 유성엽(정읍)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으며 전남에서는 초선의 황주홍(강진·영암·장흥) 의원이 오는 2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충청권에서는 3선의 양승조(충남 천안 갑) 의원이, 부산·경남(PK)에서는 3선의 조경태(부산 사하 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거론

된 후보군은 대체로 비주류 성향이 다. 실제 안민석, 조경태,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쇠신모임에 속해있다.

비주류 후보군은 일단 컷-오프까지 선의의 경쟁전을 펼친 뒤, 본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아직 별다른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달 8~9일이 후보 신청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친노 진영을 비롯해 추가로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 경선은 후보자가 8명 이상일 경우 7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이 실시되는 데 1인 3표여 사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당 대표 후보와 연대를 하는 사실상 러닝메이트 선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

제22기 결산공고	
재무상대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자 유 동 자 산	5,022,708,180
현금및현금성자산	1,036,6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98,915,462
재 고 자 산	3,443,330,528
기 타 유 동 자 산	79,425,590
II. 비 유 동 자 산	3,492,852,983
장 기 금 융 자 산	33,583,220
유 형 자 산	2,405,304,517
무 형 자 산	639,097,756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43,694,000
이 연 법 인 세 자 산	71,173,490
자 산 총 계	8,515,561,163
부 채	
I. 유 동 부 채	2,144,971,6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18,182,423
단 기 차 입 금	366,776,924
유 동 성 차 입 금	21,800,000
기 타 유 동 부 채	138,212,293
II. 비 유 동 부 채	877,656,604
장 기 차 입 금	196,200,000
퇴 직 금 여 채 무	621,456,60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000,000
부 채 총 계	3,022,628,244
자 본	
I. 자 본	2,050,000,000
II. 이 익 잉 여 금	3,546,291,474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358,555
자 본 총 계	5,492,932,919
부채 및 자본 총계	8,515,561,163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03월 25일

전남 순천시 별령면 봉낙길 1

FRIXA 주식회사 프리사

대표이사 최 형 기

감사의견 : 위 재무상대표를 포함한 제22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양 효 석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 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 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솔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 매매가 7억8천보 1억6천만. 용지 1억5천만

◆상가매매◆

- 신동동 첨단2지구 110㎡ 월수익4000만원 매매가 8억9천 (보증금 5천만 용지4억) 원 이통통신업 임업예정
- 신동동 첨단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이마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입임

분양

- 용두동 첨단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 상권) m25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
- 용두동 첨단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 상권)m2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동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 피아노노출입,미술품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매상구)
- 신동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태권도학원,미술품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매상구)

상가주택매매

- 신동동 하남2지구 1층점포3칸, 2층 투-쓰리룸3개 3층복층인입 월수익560만 매7억93천만
- 월전동 홈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억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 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투자, 권리분석, 비법전수 등등

(주)오현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